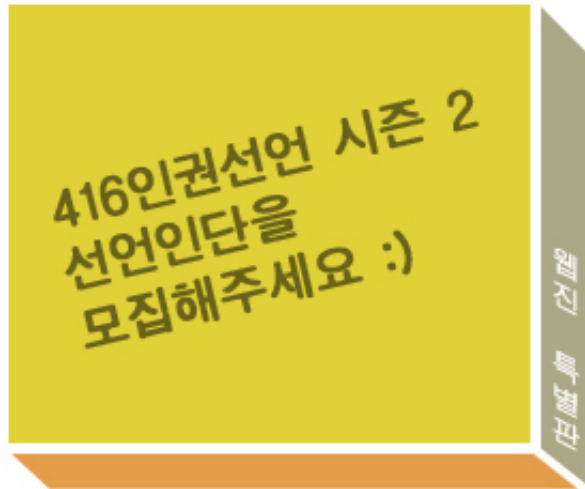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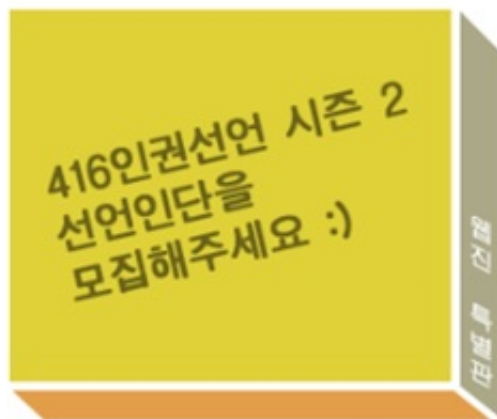
인권선언 웹진 특별판

by 인권선언416 posted Dec 18, 2015



***웹진 글을 읽으시려면 글 하단 링크를 눌러서 확인하세요~!**

| | |
|--|--|
| | <p><u>416 인권선언에서 2015년 12월 18일 발행한 특별호 한정입니다. 브란우저에서 잘 보이지 않으면 이쪽을 클릭해주세요.</u></p> |
|--|--|



416인권선언에서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4,16인권선언 추진단 여러분, 그리고 세월호 참사 9명의 미수습자 문제 해결과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위해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4,16인권선언 제정특별위원회입니다.
지난 11월 28일에는 추진단 모두가 모이는 2차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드디어 이날, 추진단 여러분의 풀뿌리토론 결과물이 인권선언문이란 이름으로 세상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들이 모여 만들어진 이 선언문은 앞으로의 행동과 실천을 위한 4,16인권선언 시즌 2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이에 지난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의 날에는 많은 분들이 비오는 광화문광장에 모여 권리 탑 쌓기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선언문을 읽으며 힘찬 출발을 다짐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4,16인권선언은 내년 2016년 4월 16일 선포됩니다. 세월호 참사에 아파했던 모든 이들이 4,16인권선언을 지지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선언인단을 모아주세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2차 전체회의에서 우리는 4,16인권선언인 약속 피켓 [나 _는 4,16인권선언에 함께하는 _을 선언한다]에 각각의 실천을 담아내고, 그 의미를 풍을 살아 간직해오

각사의 실천을 바랍니다. 그 마음을 우측 이어나가주세요.
 제정특위도 4.16인권선언 운동을 이어나갈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으며 현재는 sns에서 노란리본
 셀카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열심히 찾고 있으니 추진단
 여러분도 파이팅을 부탁드립니다.)
 추진단 여러분에게 2015년은 어떤 한 해였는지요?
 416인권선언이 추진단님의 마음 어느 한켠에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올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4.16 인권선언 제정특위 드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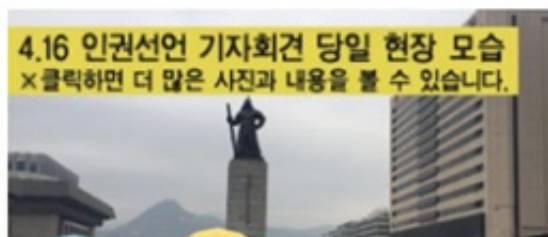
사실으로 보는
416인권선언
2차전체회의
 (2015/11/28, 수운서관)



입 밖으로 나온
말의 힘을 믿는다

4.16 인권선언 2차
 전체회의를 다녀와서 _수영님

416인권선언 진행상황



4.16 인권선언 기자회견 당일 현장 모습
 x클릭하면 더 많은 사진과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 인권선언

누구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세월호 침몰은 한국 사회가 이미 가라앉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으며, 수많은 세월호들의 침몰 속에서 다시 단쳐온 재난이다. 이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참혹하게 드러낸 참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정의를 짓밟고 언론은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에 침을 뱉고 참사의 진실을 덮으며 여전히 가만히 있으라 한다.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 이 땅에 아무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인간으로 다시 살기 위해 저항과 연대를 멈출 수 없었다. 팽목항에서, 안산에서, 광화문에서, 애룡함이 뒤덮인 또 다른 거리에서 우리는 함께 마을을 즐기고 아파했다. 눈물을 흘렸고, 이야기를 했고, 광장에 나섰고, 길을 걸었다. 흔들리면서도, 박해받으면서도 우리는 함께 싸우며 우리의 존엄을 회복하고 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모욕은 존엄을 밀어낼 수 없다.

전문을 보시려면 클릭하세요

어텐션 플리즈

4.16인권선언인이 되어주세요!

나 은(는)
4.16인권선언에 함께하여

을(를) 약속한다.



클릭

#노란리본셀카 릴레이캠페인

노란리본셀카는 세월호참사를 기억하는 노란리본과 함께 찍는 셀피입니다. 노란리본이 아니더라도 노란색의 의상, 소품, 어떤 아이템이라도 가능합니다. 노란리본 셀피를 sns에 올려 4.16인권선언을 응원하고 널리 퍼뜨려 주세요.

(☞ 클릭하면 캠페인 안내로 이동)



4.16인권선언 추진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타임라인 보러가기

조금 더 들여다보고 싶다면, 읽을거리

- *[인권오름] 책언니와 세월호: 노란색 읽은 날_염건
- *[공변의 변] 세월호 참사를 돌아보며, 이제 시작이다 -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 인권선언_윤지영 변호사
- *11월~12월 활동일지

지금까지 진행된
풀뿌리토론 보러가기

click!



Copyright © 2015 4.16declaration, All rights reserved.

*웹진 글을 읽으시려면 아래 링크를 눌러서 확인하세요~!

<4.16 인권선언에서 알려드립니다>

입 밖으로 나온 말의 힘을 믿는다(4.16 인권선언 2차 전체회의를 다녀와서_수영
님)http://416act.net/decl_archive/9999

<4.16 인권선언 진행상황>

4.16 인권선언 기자회견 당일 현장 모습<http://416act.net/notice/9641>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 인권선언 전문http://416act.net/decl_notice/9459#2

<어텐션 플리즈>

4.16 인권선언인이 되어주세요!http://416act.net/decl_notice/9459#2
#노란리본셀카 릴레이캠페인http://416act.net/decl_notice/10016
4.16 인권선언 추진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타임라인 보러가기<http://www.taogi.net/416declaration/step>
지금까지 진행된 풀뿌리토론 보러가기http://416act.net/decl_board

<조금 더 들여다보고싶다면, 읽을거리>

[인권오름] 책언니와 세월호: 노란책 읽은 날_엠건<http://hr-oreum.net/article.php?id=3202>
[공변의 변] 세월호 참사를 돌아보며, 이제 시작이다 -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 인권선언_윤지영 변호사
<http://withgonggam.tistory.com/1761>
11~12월 활동일지http://416act.net/decl_archive/9952

[웹진 특별판] 입 밖으로 나온 말의 힘을 믿는다 (4.16 인권선언 2차 전체회의 후기_수영)

by 인권선언416 posted Dec 18, 2015

입 밖으로 나온 말의 힘을 믿는다

- 4.16 인권선언 2차 전체회의를 다녀와서

수영



“저는 어려서부터 주입식 교육만을 받아 온 세대예요. ‘선언’이라는 건 배워서 외우는 것인 줄로만 알았는데, 그 ‘선언’을 우리가 직접 만든다는 게 처음엔 어색하기도 했습니다.” - 창원에서 온 노동자 이김춘택

“세월호 참사 이후 무력감을 많이 느꼈고, 그 무력감이나 불신이 사회 전체로 퍼지지 않을까 불안했어요. 풀뿌리토론을 하면서 그 ‘기억’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 곧 ‘나’에 대해서 말하는 시간이었고, 내가 누구인지, 누구와 손을 잡고 길을 찾을 것인지를 일상의 언어와 나의 경험으로 새롭게 구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토론이 끝나고 권리들을 적은 종이를 보며 비로소 미소를 지을 수 있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무력한 존재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 장애여성공감 이진희 사무국장

‘인권’ 그리고 ‘선언’. 일상에서는 좀처럼 마주칠 일이 없는 생소한 단어들이다. 이 두 가지 낯선 단어에 여러 사람의 입을 통해 생명력을 불어넣고, 우리 모두의 작품을 만드는 것. 4.16 인권선언 운동은 그런 도전이었다. 지난 11월 28일, 수운회관에 백여 명의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 인권선언 2차 전체회의가 열렸다. 2014년 12월, 인권선언 추진대회로 4.16 인권선언운동이 제안된 지 거의 1년 만이었다.

‘시민이 만드는 인권선언’을 목표로 달려온 지난 1년 동안 무수한 준비회의와 1,100여 명이 참여한 약 100회의 풀뿌리토론을 거쳐 약 860여 개의 권리가 취합되었다. 전국 각지를 넘어 해외에서도 진행된 풀뿌리토론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 모아진 ‘인권’들은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낯선 언어가 아니었다. 그 안에는 ‘세월호 이후’ 나의 마음과 너의 마음속에 맴돌던 설명할 수 없는 말들이 커켜이 쌓여 있었기 때문이다. 회의 시작 전 참여자들이 담담하게 풀뿌리토론을 했던 소감을 이야기할 때, 나는 입 밖으로 나온 그 말의 힘을 느낄 수 있었다.



“누구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풀뿌리토론으로 모인 고민들을 촘촘히 엮어 성안된 4.16 인권선언 초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었다. 세월호 참사가 우리에게 어떤 경험이었는지, 우리는 그동안 어떤 시간을 겪었는지 오롯이 보여주는 문장이었다. 풀뿌리토론은 그렇게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절박함 속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4.16 인권선언 제정특별위원회는 토론을 통해 두루 제안된 권리들을 ‘기초, 공감, 피해자, 진실과 정의, 표현과 행동, 안전, 민주주의’의 크게 일곱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분석하는 방대한 작업을 바탕으로 선언문 초안을 만들었다.

그 초안을 두고 다시 열띤 모듬 토론이 진행되었다. 나에게 가장 ‘가까운 문장’과 ‘먼 문장’은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이 인권선언을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6번 진실의 권리가 마음에 와 닿아요. 알아야 편을 들고 연대할 수 있는데, 우리는 알 권리부터 빼앗긴 것 같아요.” 최근 특별조사위원회의 난항을 반영하듯, 우리 모듬 사람들은 압도적으로 ‘진실의 권리’에 공감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의 초안은 너무 일반적이고, 지금 우리에게 인권선언이 왜 필요한지 가깝게 느껴지지 않아요. 세월호 참사의 특별함을 살릴 수 있게 좀 더 구체적이고 분명한 표현들로 수정했으면 좋겠어요.” 애정 어린 수정의견들도 쏟아졌다. 모두가 이 인권선언을 자신의 것으로 아끼고 있었다.

그렇게 함께 만든 선언문을 글자로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행동으로 이어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약속들도 함께 정했다. 동네 버스정류장에 4.16 인권선언 포스터를 붙일 것, <나쁜 나라> 영화를 지인과 보고 홍보할 것, 인권선언문을 주위의 3명과 나누고 선언인단으로 만들 것과 같은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다. 약속들이 실현될 때마다 4.16 인권선언은 살아 숨 쉬게 될 것이라고, 모두가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나의 세월호는 이렇습니다. 당신의 세월호는 어떠한가요?”

2014년 4월 16일, 국가라는 실체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목격하고 무엇이 진짜인지 혹독하게 배워야 했던 우리에게, 사실 이런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너무나도 필요했던 것 아닐까. 터져 나오는 눈물과 뭐라 설명할 길이 없던 울화, 그런 날 것 같은 감정들을 나누면서 서로의 공통점을 찾는 시간. 그 당황스럽고 막연한 감정을 나뉘지만 아니라 너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느꼈다는 걸 확인했을 때의 안도감. 추상적으로 느껴지던 마음이 명징

한 문장으로 태어났을 때의 쾌감. 세월호 참사를 겪은 우리에게 그런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다. 4월 16일의 잔인한 세월호에서는 결국 각개전투한 이들만이 살아남았다. 세월호 참사 이후 다른 사회를 만들자고 모인 우리에게 '그럼에도 사회를 복원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스스로 납득할 시간이 필요했다. 인권선언 운동은 그 이유를 찾는 여정이 되었던 것 같다.



이제는 더욱 많은 사람들이 4.16 인권선언에 담긴 권리의 내용을 자신의 것으로 이해하고 아낄 수 있도록 만드는 여정이 남았다. 우리의 인권선언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회자되고, 거리에서 호명될 때 그 진가를 발휘할 것이다. 많은 이들이 4.16 인권선언의 문장을 자신의 무기로 만들수록, 이 선언의 힘은 더욱 단단해질 것이다. 나는 다시 한 번 그 말의 힘을 믿는다.

[기자회견]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 '선언에서 행동으로' 기자회견 - 알립니다 - 416연대

세계인권선언일인 오늘 12월 10일,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을 발표했습니다.

1년의 시간동안 세월호를 기억하는 사람들과 함께 무수한 토론과 회의를 거쳐 만들었습니다. 오늘 선언문을 낭독하면서 권리조항을 쌓는 퍼포먼스도 진행했습니다. 13개의 권리조항이 분향소 영정 앞에 놓였습니다. 이제 '선언에서 행동으로' 이어지는 <선언인 운동>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선언은 선언문으로 완결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우리'가 다시 말하고, 외치고, 행동하는 과정 속에서 완성되어 갈 것입니다. 함께 손을 잡자! 함께 행동하자!

선언에 동참해주세요! 선언을 실현할 약속에 동참해주세요!**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 인권선언 기자회견<선언에서 행동으로>**

○ 일시 : 2015년 12월 10일(목) 오전 11시

○ 장소 : 광화문 세월호 광장

○ 주최 : 4.16연대 4.16인권선언 제정특별위원회

- 순서 -

진행: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1) 4.16인권선언 제정 경과 보고 : 김연지(4.16인권선언 공동추진단장, 엄마의노란손수건)

2) 발언: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

3) 다같이 선언문 낭독하면서 권리의 탑 쌓기

4) 선언인 운동 제안 : 김혜진 (4.16연대 상임운영위원)





4.16인권선언 제정 경과보고

- 2014.12.10. 인권선언운동 제안 / 이후 기획팀 구성하여 추진
- 2015.3.12. 준비회의에서 풀뿌리 토론을 중심으로 한 추진계획 논의 후 각 단체에서 풀뿌리 토론을 진행할 추진단 구성 시작.
- 2015.4.14. 1차 원탁회의를 열어 풀뿌리 토론의 기초자료가 될 인권선언문 토론.
- 2015.5.9. 2차 원탁회의를 열어 취지와 목적에 대한 토론 및 이후 풀뿌리 토론 자료 검토.
- 2015.7.11. 수운회관에서 추진단 1차 전체회의 진행 / 본격적인 풀뿌리 토론 시작
- 2015.7.15. 인권실태조사 보고회 개최
- 2015.7~10월. 약 100회의 풀뿌리토론 진행 / 1100여명 참여 / 860여개의 권리들이 취합됨 / 풀뿌리 토론 과정에서 단원고 부모님들과의 자매결연, 정기적인 일인시위 약속 등 구체적인 활동 약속이 이뤄졌고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음.
- ~2015.11월. 풀뿌리 토론에서 취합된 권리항목들을 바탕으로 성안팀에서 4.16인권선언문 초안 작성
- 2015.11.28. 4.16인권선언문 초안을 검토하는 2차 전체회의
- 2차 전체회의에서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4.16인권선언문 초안 수정
- 2015.12.10.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 발표 기자회견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 인권선언

누구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세월호 침몰은 한국 사회가 이미 가라앉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으며, 수많은 세월호들의 침몰 속에서 다시 닥쳐온 재난이다. 이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참혹하게 드러낸 참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정의를 짓밟고 언론은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에 침을 뱉고 참사의 진실을 덮으며 여전히 가만히 있으라 한다.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 이 땅에 아무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인간으로 다시 살기 위해 저항과 연대를 멈출 수 없었다. 팽목항에서, 안산에서, 광화문에서, 애통함이 뒤덮인 또 다른 거리에서 우리는 함께 마음을 즐기고 아파했다. 눈물을 흘렸고, 이야기를 했고, 광장에 나섰고, 길을 걸었다. 흔들리면서도, 박해받으면서도 우리는 함께 싸우며 우리의 존엄을 회복하고 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모욕은 존엄을 밀어낼 수 없다.

모든 사람은 그 자체로 자유롭고 평등하다. 안전한 삶은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권리다. 안전은 통제와 억압으로 보장될 수 없으며,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자유, 평등, 연대 속에서 구현되는 인간의 존엄성이야말로 안전의 기초이다. 우리의 존재가 오직 이윤 취득과 특권 유지의 수단으로만 취급되고 부당한 힘이 우리의 권리와 삶의 안전을 위협할 때 우리는 이에 맞서 싸울 것이다.

권리는 저절로 주어지지 않으며 우리가 협력하여 싸울 때 쟁취하고 지킬 수 있다. 권리를 위한 실천이 우리가 주권자임을 확인하는 길이며, 곧 민주주의 투쟁이다. 우리는 존엄과 안전을 위협하고 박탈하는 세력들에 맞서 노란 리본을 달고 촛불을 들겠다. 세월호의 아픔으로 시작한 이 싸움은, 모든 이들의 존엄을 해하는 그 어떤 장애물도 넘어설 것이다. 그리하여 함께 살고 함께 나누는 세상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이 다짐을 담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은 최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돈이나 권력은 인간의 생명과 존엄보다 앞설 수 없다.
2. (자유와 평등)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하다. 어떠한 이유로도 억압당하거나 차별받아서 안 된다.
3. (연대와 협력) 모든 사람은 연대할 권리를 가진다. 누구도 혼자 살 수 없으며, 인간의 존엄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협력하며 살아갈 때 지켜질 수 있다.

4. (안전을 위한 시민의 권리와 정부의 책임) 모든 사람은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가지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위험을 알고, 줄이고, 피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보장할 일차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
5. (구조의 의무) 정부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재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구조하고 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구조에 있어서 그 어떤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
6. (진실에 대한 권리) 모든 사람은 재난을 초래한 환경과 이유를 포함한 진실을 알 권리를 가진다. 진상조사를 위한 기구에는 충분한 권한이 주어져야 하며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진실에 대한 어떠한 은폐와 왜곡도 용납될 수 없다.
7. (책임과 재발방지) 재난의 해결은 정의로운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책임자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벌해야 하며, 유사한 재난의 발생을 막기 위해 정부와 사회는 철저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8. (피해자의 권리) 피해자는 부당한 해를 입었고 고통을 겪는다는 사실을 인정받고, 존중 받을 권리가 있다. 특히, 정부와 책임 있는 대표자로부터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 해결의 전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9. (치유와 회복) 피해자는 재난 발생 즉시 필요한 구제와 지원을 평등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치유와 회복을 위해 적극적이고 충분한 조치를 취할 일차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
10. (공감과 행동) 모든 사람은 재난으로 생명을 잃은 이들을 충분히 애도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재난 피해자의 아픔에 동참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말하고, 모이고, 행동할 권리를 가진다.
11. (기억과 기록) 공동체는 피해자를 기억하고, 재난과 그 해결의 전 과정을 기록하여야 한다.
12. (저항할 권리) 정부, 기업, 언론 등 권력기관이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할 경우, 모든 사람은 스스로 방어하고 연대하여 투쟁할 권리를 가진다.
13. (존엄에 기초한 사회를 만들 권리) 모든 사람은 돈과 권력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꿔 자유와 평등, 연대와 협력, 인간의 생명과 존엄에 기초한 사회를 만들 권리를 가진다.

우리는 상실과 애통, 그리고 들끓는 분노로 존엄과 안전에 관한 권리를 선언한다. 우리는 약속한다.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우기 위한 실천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또한 우리는 다짐한다. 이 세계에서 벌어지는 각종 재난과 참사, 그리고 비참에 관심을 기울이고 연대할 것임을. 우리는 존엄과 안전을 해치는 구조와 권력에 맞서 가려진 것을 들추어내고 목소리를 내는데 주저하지 않겠다. 이 선언은 선언문으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우리가 다시 말하고 외치고 행동하는 과정 속에서 완성되어 갈 것이다. 함께 손을 잡자. 함께 행동하자.



Sewol Ferry Disaster

There are still 9 people missing, yet to return to their families







선언을 실현할 자신만의 약속을 다짐하며 '4.16인권선언인'이 되어주세요! *4.16인권선언인 등록하기 ↓ (클릭하세요) * <4.16인권선언 약속피켓>은 첨부파일로 다운받아서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증샷 찍기, 주변에 나누기 등)

1. 416국민간담회 신청안내/ 416노란리본 법률지원신청 안내

<국민간담회 신청 안내> 1. 내용을 작성해서 제출해주시면 신청하신 내용에 맞춰 간담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2. 대부분, 신청하신대로 간담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어려운 경우, 미리 연락드리겠습니다. 3. 기타 문의는 4.16연대(02-2285-0...

Date 2016.05.11 By [사무처](#) Views 716

2. [공동체 상영 신청] '416프로젝트-망각과 기억' 상영 안내 및 신청

4.16연대 미디어위원회가 지난 2년간의 활동을 [세월호 참사 2주기, 416프로젝트-망각과 기억] 7편의

옴니버스 영화로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미디어가 '세월호'를 지우고 왜곡할 때 4.16연대 미디어위원회는 광장에서, 팽목항에서, 안산에서 그리고 4...

Date2016.04.08 By사무처 Views3119

3. [국민서명] 세월호 특조위 조사방해 사주 '해수부 문건' 경위규명, 책임자 처벌 요구 국민서명

[긴급 집중 국민서명] 세월호 특조위 조사방해 사주 <해수부 문건> 경위규명, 책임자 처벌 요구 국민서명 세월호 특조위 조사방해 사주 '해수부 문건' 작성·실행 경위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합니다! 지난 11월 19일 '세월호 특조...

Date2015.12.04 By사무처 Views838

4. 김초원·이지혜 선생님의 순직을 인정하라!

"세월호 희생자 김초원·이지혜 선생님 순직인정 대책위원회"에서는 12월 3일(목) 11시에 '황우여 교육부장관의 지역구 항의 방문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자신의 발언에 책임지지 않고, 당연하게 인정해야 할 김초원&mido...

Date2015.12.04 By사무처 Views222

5. [청소년과 세월호] 토론회, 많은 관심바랍니다.

<세월호와 청소년> 토론회 12월 3일 목요일 오후 3시 인권중심 사람 청소년 활동가가 보는 세월호 참사, 세월호 참사에서 그려졌던 청소년 발제 공현_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지정토론자 변_교육공동체 나다 대형참사를 겪은 10대의 경험과 삶 발제 이호연_세...

Date2015.11.30 By사무처 Views175

6. [팟캐스트] 정봉주의 전국구와 함께하는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세월호 진상규명 콘서트)

[세월호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팟캐스트 공개 녹음] 정봉주의 전국구와 함께하는 세월호 진상규명 콘서트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 최근 '해수부 문건사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정부는 지속적으로 특조위를 무력화하려고 합니다. 특조위 예산 및 ...

Date2015.11.27 By사무처 Views547

7. [공개항의서한] 특조위 조사방해 여당추천위원 및 해수부 규탄집회

특조위 조사방해 여당추천위원 및 해수부 규탄집회 - 2015.11.26.(목) 오후 3시 특조위 앞 - 주최 : 4.16연대 - 주관 :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국민참여 특별위원회 <이 헌 부위원장, 고영주, 차기환, 황전원, 석동현 위원에게 드리는 공개항의서한> 여러분은 지...

Date2015.11.27 By사무처 Views168

8. [긴급알림] 특조위 조사방해 여당추천위원 및 해수부 규탄집회

[긴급알림] 특조위 조사방해 여당추천위원 및 해수부 규탄집회 - 2015.11.26.(목) 오후 3시 특조위 앞 - 주최 : 4.16연대 - 주관 :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국민참여 특별위원회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치 : 명동성동 교차로 남대문세무서 건물, 서울 ...

Date2015.11.25 By사무처 Views188

9. 세월호 진상규명 광화문농성 500일 사진전

[세월호 진상규명 광화문농성 500일 사진전] *11월 25일(수)-11월 29일(일) 광화문 세월호 광장 '기억하라0416' 전시관 오프닝 행사가 내일 저녁 25일(수) 늦은 7시에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Date2015.11.24 By사무처 Views188

10. No Image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19차 위원회 회의 모니터링 결과 (2015.11.23)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19차 위원회 회의 모니터링 결과 (2015.11.23) - 제19차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회의 - - 2015년 11월 23일 (월) 7:30~10:30 - -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저동빌딩 9층 위원회 대회의실 - _ 작성 : 4.16...

Date2015.11.24 By사무처 Views242

11. [성명] 세월호 참사 대응 적절성 밝히는데 청와대만 성역인가

성명 세월호 참사 대응 적절성 밝히는데 청와대만 성역인가 세월호 특조위 여당추천 위원들의 전원회의 퇴장 명분 없어 소위에선 찬성했던 여당추천위원들, 해수부 지침문서 이후 반대로 돌변 1. 오늘 (11/23)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이하 특조위) ...

Date2015.11.23 By사무처 Views173

12. 4.16연대 '세월호 주간 회원 뉴스레터' 2호

4.16연대 '세월호 주간 회원 뉴스레터' 2호 4.16연대 일일뉴스를 주간뉴스로 전환하며 가족소식을 비롯 주요 소식을 회원분들께 매주 뉴스레터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매주 1회 발송을 할 예정입니다. 함께 공유하고 많이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Date2015.11.23 By사무처 Views220

•

1. 416국민간담회 신청안내/ 416노란리본 법률지원신청 안내

<국민간담회 신청 안내> 1. 내용을 작성해서 제출해주시면 신청하신 내용에 맞춰 간담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2. 대부분, 신청하신대로 간담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어려운 경우, 미리 연락드리겠습니다. 3. 기타 문의는 4.16연대(02-2285-0...

Date2016.05.11 By사무처 Views716

2. [공동체 상영 신청] '416프로젝트-망각과 기억' 상영 안내 및 신청

4.16연대 미디어위원회가 지난 2년간의 활동을 [세월호 참사 2주기, 416프로젝트-망각과 기억] 7편의 옴니버스 영화로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미디어가 '세월호'를 지우고 왜곡할 때 4.16연대 미디어위원회는 광장에서, 팽목항에서, 안산에서 그리고 4...

Date2016.04.08 By사무처 Views3119

3. [제19차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회의 모니터링 안내]

[제19차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회의 모니터링 안내] ● 일시 : 2015년 11월 23일 (월) 7:30
● 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저동빌딩 9층 위원회 대회의실 (남대문 세무서 건물)
● 주요내용 : 조사개시 여부 결정 등 (회의151123) 제1...

Date2015.11.22 By사무처 Views104

4. 11.20 청와대 참사대응 관련 조사신청 및 특조위 안건 논의 모니터결과 발표 기자회견 (사진 및 자료)

보도자료 청와대 참사대응 관련 조사신청 및 특조위 안건 논의 모니터결과 발표 기자회견 꼭두각시처럼 해수부 문건대로 행동한 특조위원을 비판하는 퍼포먼스 진행 일시 장소 : 11월 20일(금) 오후 1시30분 세월호참사 특조위 앞 (나라키움저동빌딩) 1. 세월...

Date2015.11.20 By사무처 Views182

5. '광화문농성 500일사진전' 페이스북 공개 그룹 개설!

광화문 세월호 광장 500일(11.25)에 즈음하여 광화문농성 500일사진전 페이스북 공개그룹 개설! Click => <http://www.facebook.com/groups/509402385897934/> 1. 이 페이스북 그룹은 세월호 진상규명, 광화문 500일 농성 사진전 행사에 여러분들의 참여를 위해 ...

Date2015.11.19 By사무처 Views142

6. [토론회]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시민토론회 "구할 수 있었다"(안산)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시민토론회 "구할 수 있었다" 이번에는 안산에서 열렸습니다. 참석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1월 24일(화요일) 오후 7시 안산 화랑유원지내 경기도미술관 강당에서 4.16연대 부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국민참여 특별위원회 시민토론...

Date 2015.11.19 By 사무처 Views 251

7. <나쁜 나라> 12월 3일 개봉일 확정

<나쁜 나라> 12월 3일 개봉일 확정 세월호 참사 이후 1년의 과정을 내밀하게 기록해낸 <나쁜 나라> (책임연출 김진열 | 제작 4.16 세월호 참사 시민기록위원회 | 배급 <나쁜 나라> 배급위원회, 시네마달)가 재편집 문제로 갑작스럽게 개봉을 연기한 지 한 달여...

Date 2015.11.19 By 사무처 Views 368

8. [성명] 해수부는 여당추천 위원 집단행동 사주 문건 작성 경위에 대해 해명하라

*해수부 문건의 문제점을 정리한 글 (4.16연대 진상규명국민참여 특별위원회 작성): 다운로드 하기 > 해수부 문건의 문제점.hwp [성명] 해수부는 여당추천 위원 집단행동 사주 문건 작성 경위에 대해 해명하라 청와대 조사 막으려고 해수부 문건대...

Date 2015.11.19 By 사무처 Views 192

9. [참여신청] 4.16인권선언 '2차 전체회의'가 열립니다!

풀뿌리토론에 함께 하셨던 분들, 4.16인권선언을 함께 만들어가고 싶은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참여신청 링크: <http://goo.gl/forms/Tqh0HzW8nH> 시간 | 2015년 11월 28일(토) 오후 1시 장소 | 수운회관 대강당(서울 종로구, 안국역) 주최 | 4.16연대 1부. 4...

Date 2015.11.19 By 사무처 Views 261

10. 국민참여형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집 기획 6번째: "무서운 평행 이론, 1953 창경호 vs. 2014 세월호"

무서운 평행 이론, 1953 창경호 vs. 2014 세월호 [국민참여를 통한 세월호 진상규명] 꼬리 자르기 수사, 솜방망이 처벌, 다른 참사에 대한 '초대장' 박주민 변호사 2015.11.17 14:52:03 300명이 넘게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1953년 창경호 침몰 사...

Date 2015.11.18 By 사무처 Views 254

11. [우리, 여기 있어요] 잊지 않겠다는 약속, 세월호를 기억하는 광주 문화제

세월호를 기억하는 문화예술인과 4.16연대가 잊지 않겠다는 약속, 세월호를 기억하는 문화제 [우리, 여기 있어요]를 준비했습니다. 2015년 11월 30일 오후 7시 30분/ 광주 빛고을 시민문화관 (옛 구동 실내체육관) 광주 시민 여러분과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Date 2015.11.18 By 사무처 Views 207

12. [참사600일]기억과 약속의 길, 도보순례&난장문화제

[참사600일]기억과 약속의 길, 도보순례&난장문화제 14:00-15:20 단원고 교실방문 15:30-16:30 도보순례(단원고→화랑유원지 산책로→안산합동분향소) 16:30-18:00 600일 난장 문화제

Date 2015.11.18 By 사무처 Views 553

[4.16인권선언에 동참하기] 4.16인권선언인이 되어주세요!

by 사무처 posted Dec 04, 2015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 인권선언

누구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세월호 침몰은 한국 사회가 이미 가라앉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으며, 수많은 세월호들의 침몰 속에서 다시 닥쳐온 재난이다. 이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참혹하게 드러낸 참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정의를 짓밟고 언론은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에 침을 뱉고 참사의 진실을 덮으며 여전히 가만히 있으라 한다.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 이 땅에 아무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인간으로 다시 살기 위해 저항과 연대를 멈출 수 없었다. 팽목항에서, 안산에서, 광화문에서, 애통함이 뒤덮인 또 다른 거리에서 우리는 함께 마음을 졸이고 아파했다. 눈물을 흘렸고, 이야기를 했고, 광장에 나섰고, 길을 걸었다. 흔들리면서도, 박해받으면서도 우리는 함께 싸우며 우리의 존엄을 회복하고 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모욕은 존엄을 밀어낼 수 없다.

모든 사람은 그 자체로 자유롭고 평등하다. 안전한 삶은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권리다. 안전은 통제와 억압으로 보장될 수 없으며,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자유, 평등, 연대 속에서 구현되는 인간의 존엄성이야말로 안전의 기초이다. 우리의 존재가 오직 이윤 취득과 특권 유지의 수단으로만 취급되고 부당한 힘이 우리의 권리와 삶의 안전을 위협할 때 우리는 이에 맞서 싸울 것이다.

권리는 저절로 주어지지 않으며 우리가 협력하여 싸울 때 쟁취하고 지킬 수 있다. 권리를 위한 실천이 우리가 주권자임을 확인하는 길이며, 곧 민주주의 투쟁이다. 우리는 존엄과 안전을 위협하고 박탈하는 세력들에 맞서 노란 리본을 달고 촛불을 들겠다. 세월호의 아픔으로 시작한 이 싸움은, 모든 이들의 존엄을 해하는 그 어떤 장애물도 넘어설 것이다. 그리하여 함께 살고 함께 나누는 세상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이 다짐을 담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은 최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돈이나 권력은 인간의 생명과 존엄보다 앞설 수 없다.
2. (자유와 평등)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하다. 어떠한 이유로도 억압당하거나 차별받아서 안 된다.
3. (연대와 협력) 모든 사람은 연대할 권리를 가진다. 누구도 혼자 살 수 없으며, 인간의 존엄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협력하며 살아갈 때 지켜질 수 있다.
4. (안전을 위한 시민의 권리와 정부의 책임) 모든 사람은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가지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위험을 알고, 줄이고, 피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보장할 일차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
5. (구조의 의무) 정부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재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구조하고 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구조에 있어서 그 어떤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

6. (진실에 대한 권리) 모든 사람은 재난을 초래한 환경과 이유를 포함한 진실을 알 권리를 가진다. 진상조사를 위한 기구에는 충분한 권한이 주어져야 하며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진실에 대한 어떠한 은폐와 왜곡도 용납될 수 없다.
7. (책임과 재발방지) 재난의 해결은 정의로운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책임자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벌해야 하며, 유사한 재난의 발생을 막기 위해 정부와 사회는 철저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8. (피해자의 권리) 피해자는 부당한 해를 입었고 고통을 겪는다는 사실을 인정받고, 존중 받을 권리가 있다. 특히, 정부와 책임 있는 대표자로부터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 해결의 전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9. (치유와 회복) 피해자는 재난 발생 즉시 필요한 구제와 지원을 평등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치유와 회복을 위해 적극적이고 충분한 조치를 취할 일차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
10. (공감과 행동) 모든 사람은 재난으로 생명을 잃은 이들을 충분히 애도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재난 피해자의 아픔에 동참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말하고, 모이고, 행동할 권리를 가진다.
11. (기억과 기록) 공동체는 피해자를 기억하고, 재난과 그 해결의 전 과정을 기록하여야 한다.
12. (저항할 권리) 정부, 기업, 언론 등 권력기관이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할 경우, 모든 사람은 스스로 방어하고 연대하여 투쟁할 권리를 가진다.
13. (존엄에 기초한 사회를 만들 권리) 모든 사람은 돈과 권력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꿔 자유와 평등, 연대와 협력, 인간의 생명과 존엄에 기초한 사회를 만들 권리를 가진다.

우리는 상실과 애통, 그리고 들끓는 분노로 존엄과 안전에 관한 권리를 선언한다. 우리는 약속한다.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우기 위한 실천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또한 우리는 다짐한다. 이 세계에서 벌어지는 각종 재난과 참사, 그리고 비참에 관심을 기울이고 연대할 것임을. 우리는 존엄과 안전을 해치는 구조와 권력에 맞서 가려진 것을 들추어내고 목소리를 내는데 주저하지 않겠다. 이 선언은 선언문으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우리가 다시 말하고 외치고 행동하는 과정 속에서 완성되어 갈 것이다. 함께 손을 잡자. 함께 행동하자.

**선언을 실현할 자신만의 약속을 다짐하며
'4.16인권선언인'이 되어주세요!**

나 은(는)
4.16인권선언에 함께하며

을(를) 약속한다.

존엄



안전



인권



선언



* <4.16인권선언 약속피켓>은 첨부파일로 다운받아서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인증샷 찍기, 주변에 나누기 등)

<#4.16인권선언 #노란리본셀카 SNS 릴레이 캠페인>을 제안합니다!

by 사무처 posted Dec 18, 2015

4.16인권선언 노란리본셀카 릴레이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416인권선언 #노란리본셀카 릴레이 캠페인>

4.16인권선언 노란리본셀카 릴레이 캠페인을 제안합니다.

아래와 같은 문구로 본인이 사용하는 SNS에 릴레이 캠페인을 이어가 주세요!

#416인권선언 #노란리본셀카 릴레이 캠페인

저 000은 416인권선언 선언인임을 알리는 #노란리본셀카 캠페인에 참여합니다.

노란리본셀카는 세월호참사를 기억하는 노란리본과 함께 찍는 셀카입니다. 노란리본이 아니더라도 노란색의 의상, 소품, 어떤 아이템이라도 가능합니다.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을 지지하는 마음도 함께 담아주세요.

모든 사람은 존엄하고, 자유롭고 평등합니다. 돈이나 권력은 인간의 생명과 존엄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가 존엄하고 안전한 사회로 변화할 수 있도록 #416인권선언 선언인이 되어주세요.

:: 416인권선언 읽고 선언인 등록하기 <http://goo.gl/forms/tXcFv8jQ98>

다음으로 이 캠페인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친구들은 000.000.000 (3인)입니다. 세 분은 48시간 내에 같은 방식으로 위 내용과 함께 노란리본 셀카를 찍어 올리시고 다음 타자 세 분을 지목해주세요. 선언에서 행동으로 이어지는 약속을 지켜나갑시다.

한사람 한사람 선언인을 모으고, 선언을 행동으로 실현해 나가는 과정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4.16 이전과 다른 사회를 만드는 든든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웰컴투, 여덟살 구역] 책언니와 세월호: 노란책 읽은 날

엠컨



책언니에서 처음 '세월호' 얘기를 했던 건 아마 작년 4월, 참사가 있고 얼마 안 지나서였다. 그땐 애들이 아홉 살이었다. 이 말은 곧 애들이 10분 이상 제자리에 그냥 앉아있는 법이 없을 때였다는 소리다. (물론 지금도 쉽지는 않다.) 그런데도 그날은 “너희들 세월호 소식 들었지?”라는 우리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후에 길게 이어지던 다소 무겁고 어려운 이야기들을 잠자코 들어주었던 기억이 난다. TV만 틀면 사라진 언니 오빠들의 소식이 흘러나오고, 어른들도 모였다 하면 세월호를 이야기하면서 한숨을 푹푹 내쉬던 때였으니, 아홉 살 사람들이 느끼기에도 ‘잘은 모르겠지만, 뭔가 아주 나쁜 일이 벌어지긴 했구나.’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세월호는 어린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복잡한 슬픔이었다. 4월 16일 이후, 배가 가라앉는 4일의 시간 동안 매일 소주를 마시면서 뉴스를 봤던 우리 아빠 같은 어른들이 있는가 하면, 아는 오빠가 세월호에 타고 있었다며 유명인을 안다는 듯 자랑삼아 말하는 민주(가명)같은 아이들도 있었다. 민주는 아는 오빠의 죽음에 대해 슬퍼하기보다는 처음 가본 장례식장을 더 신기해했다. 누군가의 죽음, 그로 인한 슬픔. 책 속의 글씨처럼 자신과 동떨어져 존재하는 감정들을 아직은 이해하지 못 하는 것 같았다. 경험의 부재에서 오는 무감각이라고 해야 하나. 그때 민주를 보면서 어린이라 불리는 나이대의 사람들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이해를 나눈다는 게 당연한 말이지만 절대 만만한 일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얼핏 들었다.

고마워요, 노란책!

그 만만치 않을 일을 진짜로 하게 될 줄은 몰랐다. 올 여름 무렵, 안전과 존엄을 위한 4.16 인권선언 추진단에 합류하게 되었고, 덜컥 책언니에서 풀뿌리토론을 해보겠다고 말을 꺼내긴 했는데 막상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안 왔다. 검색창에 무작정 세월호를 검색해서 영상을 보고, 인터뷰와 기사를 읽고, 관련된 책을 찾아보아도, 좀처럼 ‘풀뿌리토론 열 살 버전’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는 알 수 없었다. 그러던 중 발견한 게 <노란책>, 어린이책 만드는 분들이 엮은 세월호에 관한 그림책이었다. ‘4.16 세월호 그 후’라는 제목의 공동창작 그림책은 PDF파일로 공개되어 있었다. 노란색 뾰뚱한 A4 용지에 고이 프린트하고, 말투와 내용을 애들 들려주기 좋게 살짝 수정했더니 제법 읽어주기 좋은 모양새가 되었다.

우리가 수업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어떤 수업이든 애들이 자연스럽게 빠져들 수 있는 에피소드 형태를 통해 내용을 담으려고 애쓸 때가 많다. 정보 위주, 설명조의 말들은 애들의 무관심 절벽에 반사되어 귀에 닿기도 전에 사방으로 흩어져버린다. 세월호 참사의 경우 가뜩이나 뉴스 앵커가 들려주는 해설이나 신문 논평 식의 어려운 정보들만 머릿속에 가득 차있어서 열 살짜리 애들한테 세월호가 어떤 일이었는지를 설명하는 것부터가 막막했다. 현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려줘야 할까?’ 먼저 고민했던 분들이 있었던 덕분에 첫 단추를 쉽게 켈 수 있었다.



▲ 풀뿌리토론을 마치고

풀뿌리토론에서 욕이 폭발하네

노란책에서는 시간 순으로 ‘416, 이후 벌어진 일들’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 방식이 참사 동안 벌어진 여러 부조리들을 자연스럽게 하나의 이야기로 꿰어준다는 느낌이 들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말이 주는 무게감 때문이었는지, 노란책을 읽던 날에는 매일 만 것하던 애들까지 빠짐없이 모여들었다. 신기할 정도로 다들 집중해서 듣는 바람에 읽는 나도 얼떨떨했다. 근데 잘 진행된 건 딱 여기까지였다. 이날 제대로 한건 이 노란책 읽기 딱 하나 밖에 없었다. 정작 중요했던 토론의 질문들에 대한 답변은 토론이 지루했던 몇몇 애들이 날뛰기 시작하면서 화산처럼 와르르 폭발했다가 빠르게 식어버리고 말았으니까.

다음은 이날 나는 풀뿌리토론의 일부다.

1. 세월호를 떠올리면 어떤 기분이 들어?

“언니, 오빠들 숨을 못 쉬어서 힘들었겠다. 언니, 오빠 부모님 슬프겠다.”

“아! 우리 어린이다. 우린 어찌냐?! 만약 그 일 또 일어나면 어쩔거냐.”

2. 세월호 이후 벌어진 일들 중에서 가장 “말도 안 돼!” “너무했다, 나빠!” 싶었던 일은?

“왜 해경들이 그거밖에 바다에 안 들어갔음? 나빠다. 미쳤다.”

“박근혜 때문인데 박근혜가 눈물 흘림. 클라스 보소~ 미친 년.”

3. 세월호 같은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라앉은 배를 왜 안 꺼내지? 너라면 죽었는데 바다에 빠졌는데 안 꺼내면 좋겠냐?”

“그딴 대통령 안 뽑기, 방송 그따구로 내보내지 않기.”

사실 나는 진작 풀뿌리토론을 끝냈지만, 이 결과를 공유하지는 못 했다. 위에 적어둔 건 조금 암전한 답변들이고, 다른 건 내용들이 좀 더 세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욕으로 가득한 속기록을 읽고 나니, 차마 남들 보라고 내놓을 엄두가 나지 않았다. 개중에는 잔혹동시로 한참 이슈가 된 적 있던 이순영 시인의 시 ‘솔로강아지’의 페러디 욕도 있었다. (박** 눈깔을 파먹고 심장을 간장에 찍어먹고 삶아먹고 구워먹어) 1번 질문부터 3번 질문까지 질문 내용과 상관없이 다들 욕하는 재미에 흠뻑 빠지는 바람에 우리의 풀뿌리토론은 정체불명의 결과물을 낳고 말았다. 남들처럼 멀쩡한 토론이 될 리가 없지. 예정된 결과였는지도 모르겠다. 하하하.

정말로 싫은 것

애들은 1학년 때부터 야금야금 욕을 배워서 2학년 때부터는 자유자재로 쓰기 시작했다. 한 번은 그날 읽은 책 내용을 바탕으로 퀴즈대회를 하기로 했다. 팀을 2팀으로 나누고, 정답 구호 대신 팀 이름을 외치기로 했다. 그랬더니 한쪽에서 팀 이름을 욕으로 정했다. 예를 들면 ‘빨간팀!’ 대신 ‘씨발!’을 외치는 식이다. 애들은 이 퀴즈대회 내내 진심으로 즐거워했다. 정답 맞출 생각이 없는 애들도 구호는 외쳤다. 체크언니 하면서 애들이 욕 하는 걸 막아본 적은 없다. 시도 때도 없이 욕을 쓴다는 건 그만큼 일상적으로 쌓이는 스트레스와 분노가 있다는 뜻이고, 아동·청소년들이 쓰는 욕은 매일 억눌린 상태에 있는 것에 대한 반감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쓰는 욕에는 정확한 대상이 없다. 나를 억누르는 세상에 대한 막연한 분노의 표출... 욕으로 가득했던 열 살들의 풀뿌리토론에서도 비슷한 걸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애들이 정말로 화를 냈던 대상은 현직 대통령일 수도 있지만, 꼭 그녀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날 애들이 접한 것은 노란책에서 들은 이야기 정도였고, 박근혜나 해경 나쁜 놈 등의 반응은 전래동화를 읽고 전형적인 악당들에게 보이는 반응과 비슷했던 것도 같다. 아이들은 경험이나 정보의 절대량이 부족한 만큼 익숙한 틀(전래동화의 선악구도 등)을 통해서 사회적 사건을 단순화해서 받아들인다. 그 단순함 속에서도 세월호 참사에 대한 자신들 나름의 이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건에 대한 세세한 이해 대신 현실의 ‘나쁘고 부당한 부분’을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고, 이점에 반응한다. 정말로 무관심했다면 그날 그렇게 날뛰면서(?) 포스트잇에 노란책에 나온 나쁜 놈들에 대한 욕을 열정적으로 써대지도 않았을 것이다.

아이들에게 정말로 위험한 것은 무엇인가?

이 수업을 준비하면서 전체적으로 가져왔던 핵심은 애초에 세월호 참사 자체에 대한 것보다는 세상에 대한 것이었다. 지금 이곳은 어린이들에게도 충분히 살기 좋고, 안전한 세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싱글맘인 엄마가 일을 나가면서 아이들이 있는 집의 문을 바깥에서 따로 잠그고 가는 바람에 화재가 일어나 변을 당했다는 사건을 들은 적이 있다. 혼자 몸으로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에게는 문을 잠그고 가는 선택이 바깥의 위험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을 수 있다. 하지만 어린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 정말로 바깥의 위험이기에만 할까? 그들의 삶에 언제든 자물쇠를 채울 수 있다는 어른들의 발상이야말로 어린 사람들의 세상을, 삶을 더 위험한 곳으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굳이 어린이들과 풀뿌리토론을 하면서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쪽에 가까웠다. 물론 중간에 얼어져서 뒷 얘기를 못 하긴 했다만, 앞으로도 더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 아마도?

덧붙임

엠건 님은 교육공동체 나다 활동가입니다.

관련기사

- [헬킵투, 여덟살 구역] 편견이 없을 거라는 편견
- [헬킵투, 여덟살 구역] 지금 이 순간이 필요해

인권오름 제 466 호

[공변의 변] 세월호 참사를 돌아보며, 이제 시작이다 -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 인권선언_윤지영 변호사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 인권선언
선언하라.
우리들!

"피고인은 무죄"

민간잠수사 공우영은 세월호 실종자 수색 작업에 참여했다. 그는 작년 여름 동료 민간잠수사 이광욱의 사망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다. 1년 6개월 가까이 1심 재판이 진행되었고 최근 판결 선고가 났다. '피고인은 무죄', 이 뻔한 결과를 얻기 위해 공우영 씨는 목포지원까지 십 수차례 다녀야 했다. 여기에 들어간 시간과 비용, 무엇보다 정신적 고통은 무죄 판결로도 보상되지 않는다.

공교롭게도 같은 시기에 검찰은 정반대의 결정을 했다. 고 이광욱 씨의 유족과 416연대 등은 이광욱 씨의 사망에 대해 해경에 책임을 물으며 해경을 고발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고발을 각하했다. 각하에 대해 항고를 하였으나 최근 서울고검 역시 항고를 기각했다. 이 과정에서 고발인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고 이광욱 씨의 죽음은 어떻게 위로받아야 하나. 여전히 유족들은 고인의 사망 원인에 의문을 품고 있고, 철저한 수사를 바라고 있는데 말이다. 1년 넘게 고 이광욱 씨의 유족들과 민간잠수사 양쪽을 지원하고 지켜봐 왔다. 그런데 검찰은 '정부에 책임 없다'는 결론을 먼저 내리고 이에 맞춰 수사한 것 같다. 힘없는 사람들을 가해자와 피해자로 만들어 싸움을 부추기면서 책임의 주체인 해경은 뒤로 숨어버린 것 같다.

얼마 전에는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단원고 기간제 교사 두 분의 유족과 함께 교육부 담당 국장을 면담했다. 정규직 교사들은 모두 순직을 인정받았으나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은 기간제라는 이유로 순직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 담당 국장은 기간제교사는 교육공무원이 아니라면서 유족들에게 "산재로 하는 것이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 담당자들은 관련 없는 소송을 들먹이면서 그 소송에서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다. 그것도 소송 결과를 바로 그때 가서 들어줄지 말지 입장을 표명하겠단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이후로 나는 세월호 참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처음 세월호 참사 문제에 관여하게 된 것은 세월호에 탑승한 화물차 기사들 때문이었다. 단원고 학생들의 사망에 가슴만 아파하던 상황이었다. 그러다가 세월호에는 생존했지만, 생계유지수단을 잃어버린 화물차 기사들도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 그래서 인권활동가들과 함께 화물차 기사를 비롯한 진도어민, 이주민, 생존자, 세월호 아르바이트생 등 잘 드러나지 않는 피해자들을 지원했다. 잠시나마 일반인 희생자에 대한 법률 지원도 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세월호 참사로 인한 전체 피해자들의 인권실태보고서 작업에 참여하였고 지금은 세월호 집회

주최자로 기소된 김혜진, 박래군의 집시법 위반 등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오랫동안 관여해 오면서 몇 가지 느낀 점이 있다.

먼저 정부는 말 바꾸기를 아무렇지 않게 한다는 것이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올해 7월 국회에서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이고 교사로서의 모든 권한과 자격이 있는데 그 처우는 아직 미비한 점이 있다. 순직은 반드시 관철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제 와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한다. 민간잠수사들에 대해서도 처음에 해경은 무엇이든 다 지원하겠다고 이야기했단다. 그러나 현재 이들이 그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는데도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혜진, 박래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작년에는 아무런 말이 없다가 이제서야 작년 7월 24일 세월호 100일 추모 집회를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무엇보다 작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께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특별법은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특검도 해야 된다. 근본부터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지 (중략)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상 규명에 있어서 유족 여러분들이 여한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깊은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라고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떤가. 소관 기관들이 마치 폭탄 돌리기라도 하듯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시간만 끌다가 끝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 과정이 피해자들에게는 또 다른 상처가 된다.

정부가 이렇게 대놓고 말 바꾸기를 하는 데에는 언론에도 책임이 있다. 처음에는 모든 언론이 세월호 참사에 동감하면서 다시는 이런 재난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참사의 원인을 짚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몇몇 언론을 제외하고는 피로감과 일상으로의 복귀를 이야기하면서 피해자들을 휘방꾼이나 이기적인 집단으로 몰아갔다.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는 관심에서 점점 멀어져 갔다.

생각해 보면 매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된다. 돈 앞에서 생명과 안전이 무너지고, 정부든 기업이든 언론이든 그 순간에는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말하다가도 어느 순간 기억에서는 사라진다. 반복해서 재난이 일어나고 반복해서 엉터리 대응만 이루어진다.

세월호는 그렇게 잊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유족들이 지금도 거리에서 싸우는 이유는 다시는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세월호 참사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안전한 사회에서 살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이러한 마음을 담아 4.16. 인권선언을 만들었다. 1년 가까이 4.16. 인권선언을 준비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셀 수 없이 많이 풀뿌리 토론을 진행했고, 그 결과를 인권선언으로 만드는 작업을 했다. 인권선언을 만들기 위해 했던 회의만 20번은 족히 될 것이다. 단어 하나, 조사 하나까지도 열띤 논의를 거쳐 만들었다. 검증 작업도 여러 번 했다. 많은 사람이 모여 준비한 그 결과물이 드디어 세상에 나왔다. 세계인권선언이나 기미독립선언에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받는 사회에서 사는 데에 4.16. 인권선언이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 인권선언

누구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세월호 침몰은 한국 사회가 이미 가라앉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으며, 수많은 세월호들의 침몰 속에서 다시 닥쳐온 재난이다. 이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참혹하게 드러낸 참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정의를 짓밟고 언론은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에 침을 뱉고 참사의 진실을 덮으며 여전히 가만히 있으라 한다.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 이 땅에 아무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인간으로 다시 살기 위해 저항과 연대를 멈출 수 없었다. 팽목항에서, 안산에서, 광화문에서, 애통함이 뒤덮인 또 다른 거리에서 우리는 함께 마음을 졸이고 아파했다. 눈물을 흘렸고, 이야기했고, 광장에서 나섰고, 길을 걸었다. 흔들리면서도, 박해받으면서도 우리는 함께 싸우며 우리의 존엄을 회복하고 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모욕은 존엄을 밀어낼 수 없다.

모든 사람은 그 자체로 자유롭고 평등하다. 안전한 삶은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권리다. 안전은 통제와 억압으로 보장될 수 없으며,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자유, 평등, 연대 속에서 구현되는 인간의 존엄성이야말로 안전의 기초이다. 우리의 존엄이 오직 이윤 취득과 특권 유지의 수단으로만 취급되고 부당한 힘이 우리의 권리와 삶의 안전을 위협할 때 우리는 이에 맞서 싸울 것이다.

권리는 저절로 주어지지 않으며 우리가 협력하여 싸울 때 쟁취하고 지킬 수 있다. 권리를 위한 실천이 우리가 주권자임을 확인하는 길이며, 곧 민주주의 투쟁이다. 우리는 존엄과 안전을 위협하고 박탈하는 세력들에 맞서 노란 리본을 달고 촛불을 들겠다. 세월호의 아픔으로 시작한 이 싸움은, 모든 이들의 존엄을 해하는 그 어떤 장애물도 넘어설 것이다. 그리하여 함께 살고 함께 나누는 세상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이 다짐을 담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은 최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돈이나 권력은 인간의 생명과 존엄보다 앞설 수 없다.
2. (자유와 평등)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하다. 어떠한 이유로도 억압당하거나 차별받아서 안 된다.

3. (연대와 협력) 모든 사람은 연대할 권리를 가진다. 누구도 혼자 살 수 없으며, 인간의 존엄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협력하며 살아갈 때 지켜질 수 있다.
4. (안전을 위한 시민의 권리와 정부의 책임) 모든 사람은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가지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위험을 알고, 줄이고, 피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보장할 일차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
5. (구조의 의무) 정부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재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구조하고 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구조에 있어서 그 어떤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
6. (진실에 대한 권리) 모든 사람은 재난을 초래한 환경과 이유를 포함한 진실을 알 권리를 가진다. 진상조사를 위한 기구에는 충분한 권한이 주어져야 하며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진실에 대한 어떠한 은폐와 왜곡도 용납될 수 없다.
7. (책임과 재발방지) 재난의 해결은 정의로운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책임자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벌해야 하며, 유사한 재난의 발생을 막기 위해 정부와 사회는 철저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8. (피해자의 권리) 피해자는 부당한 해를 입었고 고통을 겪는다는 사실을 인정받고, 존중 받을 권리가 있다. 특히, 정부와 책임 있는 대표자로부터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 해결의 전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9. (치유와 회복) 피해자는 재난 발생 즉시 필요한 구제와 지원을 평등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치유와 회복을 위해 적극적이고 충분한 조치를 취한 일차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
10. (공감과 행동) 모든 사람은 재난으로 생명을 잃은 이들을 충분히 애도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재난 피해자의 아픔에 동참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말하고, 모이고, 행동할 권리를 가진다.
11. (기억과 기록) 공동체는 피해자를 기억하고, 재난과 그 해결의 전 과정을 기록하여야 한다.
12. (저항할 권리) 정부, 기업, 언론 등 권력기관이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할 경우, 모든 사람은 스스로 방어하고 연대하여 투쟁할 권리를 가진다.
13. (존엄에 기초한 사회를 만들 권리) 모든 사람은 돈과 권력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꿔 자유와 평등, 연대와 협력, 인간의 생명과 존엄에 기초한 사회를 만들 권리를 가진다.

우리는 상실과 애통, 그리고 들끓는 분노로 존엄과 안전에 관한 권리를 선언한다. 우리는 약속한다.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우기 위한 실천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또한 우리는 다짐한다. 이 세계에서 벌어지는 각종 재난과 참사, 그리고 비참에 관심을 기울이고 연대할 것임을. 우리는 존엄과 안전을 해치는 구조와 권력에 맞서 가려진 것을 들추어내고 목소리를 내는데 주저하지 않겠다. 이 선언은 선언문으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우리가 다시 말하고 외치고 행동하는 과정 속에서 완성되어 갈 것이다. 함께 손을 잡자. 함께 행동하자.

공감의 모든 활동은 100% 기부회원의 기부로 이루어집니다

당신의 작은 나눔이 후원하기 GO
공감에게는 큰 희망이 됩니다

신고

기부회원 인터뷰



지난 30일, 공감 정기 기부회원을 초청하여 마련한 나눔밥상에서 처음 만난 곽인찬, 조경희 부부는 공감과 오래전부터 인연을 맺어온 특별한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나눔밥상이 있고 며칠 뒤 만난 조경희 기부회원은 공감과 인연을 맺게 된 이야기부터 들려주었습니다. **공감과의 인연, '저런 변호사들도 있단 말이야?'** 공감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2005년에 TV에서 우연히 공감의 활동을 보고 그 활동들에 감동하여 기부를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 인연이 2012년에는 '추모기금'으로 이어졌는데요, 2011년 돌아가신 아버님을 추모하면서 의미 있는 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장례비용을 치르고 남은 부의금을 부모님 이름의 추모기금으로 공감에 기부하며 특별한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평소 사회에 많은 관심을, '답답하고, 답답해요. 그리고 미안해요'** 조경희 기부회원은 위기청소년 자세 교정,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영어 가르치기, 요양원 근무자를 위한 건강 지원 등의 활동을 하며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곳에 직접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답답해요. 진짜 답답한 일이 많아요. 근데 그런 게 어쨌든 이 사회가... 잘못된 것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제가 자원봉사나 기부를 하는 건 미안한 마음 때문인 것 같아요." 그동안 봐왔던 안타까운 모습들을 떠올리며 이야기하는 조경희 기부회원은 이런 사회를 물려줘서, 사회의 많은 잘못된 부분을 해결해주지 못하는 어른들이 미안해야 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한 번에 한 사람씩, 테레사 수녀와 불가사리 이야기 조경희 기부회원은 자신이 하는 작은 일들이 사회에 조금이나마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희망을 품는다고 합니다. 공감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권의 경계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듯이, 자신도 당장 많은 것들을 바꿀 수는 없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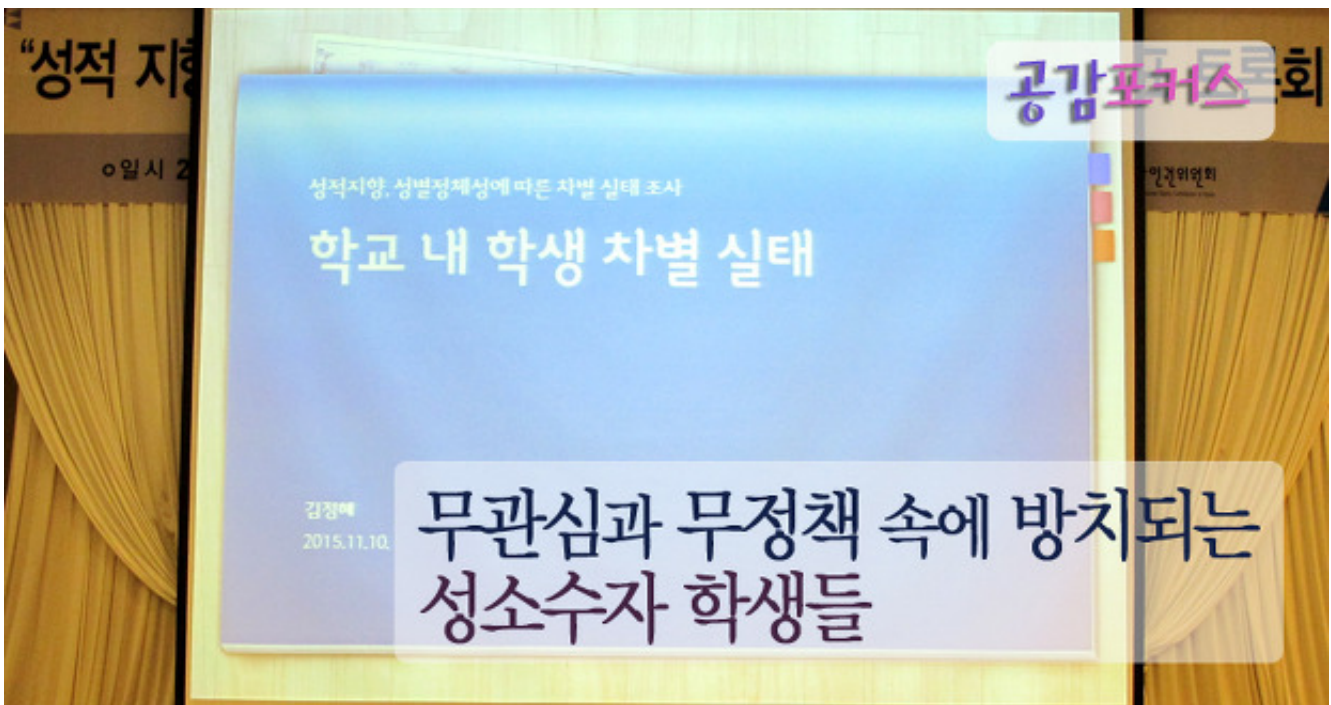


“테레사 수녀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들은 것 같아요. 바닷가로 수백만 마리의 불가사리가 떠내려 왔대요. 그냥 내버려두면 죽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불가사리를 한 마리씩 들어서 바다에 던져주고 있더라요. 지나가던 사람이 ‘수백만 마리의 불가사리가 있는데 그러한 행동이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라고 물었다고 해요. 그러자 그 사람은 ‘모든 불가사리에게는 큰 의미가 없겠지요. 하지만 내가 지금 던지는 한 마리는 살아나겠지요’라고 말했대요. 제가 하는 일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물론 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불가사리를 구해주는 것보다 더 힘들겠지만요.” 조경희 회원님의 활동과 공감이 하는 일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입법활동이 어렵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회를 바꿔나가는 것은 그러한 입법활동이라고 생각해요. 공감에서의 활동과 공감 회원들의 작은 관심들이 모이면, 입법활동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작은 활동과 관심들이 많이 생기고 모였으면 좋겠어요” **소방관이 행복한 사회’를 꿈꾸며... 조경희 회원님께서 바라는 사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의 사회일까요?** “저는 물질만능주의가 잘못된 것 같아요. 돈으로 다 할 수 있다는 것. 그런데 그 돈 모아서 뭐할 건지 저는 궁금해요. 가치 있는 곳에 쓰이지 못하고 쌓이기만 하는 돈이 저는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돈이 가치 있는 곳에 쓰였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경제 순환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물질만능주의가 줄어든 사회, 그러한 사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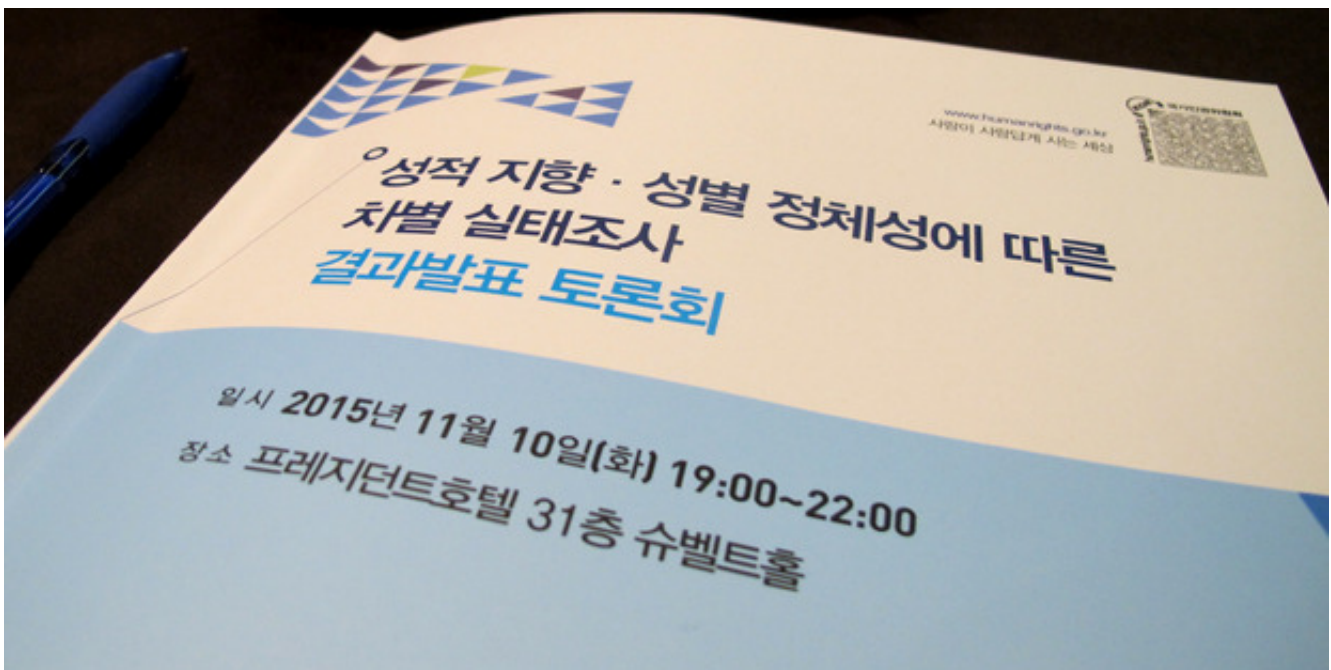
“오늘 서해대교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 한 분이 돌아가셨다고 해요. 소방관분들의 처우가 너무 열악하다고 해요. 저는 사회를 위해서 몸으로 뛰시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이런 분들이 정당하게 대우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너무 극단적으로 말하는 걸지도 모르겠지만, 국회의원보다 소방관분들의 월급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회가 좋은 사회인 것 같아요.”

공감 Up 프로젝트

“나눔밥상이 훈훈하고 따뜻한 분위기도 좋았지만, 공감과 소통을 할 수가 있어서 좋았어요. 뿐만 아니라 ‘공감 Up 프로젝트’는 꼭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저 ‘잘 지내고 있겠거니’라고 생각했었는데, 적자인지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소식을 듣자마자 증액을 하기로 생각했어요. 물론 이러한 프로젝트를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적어도 공감이 어떤 상황인지 공유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잇을 만 하면 한 번씩 이런 프로젝트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경희 기부회원은 공감에 늘 많은 관심을 가져, 어떻게 하면 이러한 활동이 잘 확산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주시는 모습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더구나 개인적으로 준비해 두신 유언장에 공감을 포함시켜 주셨다니 공감은 너무나 크고 감사하고 소중한 마음을 전달받아 참 따뜻해졌습니다. 꾸준히 공감을 지켜봐 주시고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기부회원님들 덕분에 공감은 지치지 않고 늘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강태호(공감 22기 자원활동가)



국민의 대부분이 어린 시절의 대부분을 보내는 장소인 학교는 사회적으로 승인된 관행이 강요되는 곳이다. 학교는 학생을 남성과 여성으로 양분하고 학생들이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남성 또는 여성으로 성장하도록 지도하고자 한다. 학생은 남학교 또는 여학교로 배정되고, 이분법적 성별에 따라 머리 길이와 의복의 규제를 받고, 이분법적 성별에 따라 서로 다른 행동 규율의 적용을 받는다. 학교는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무성적이기를 기대하며, 이성애자로서 가족을 구성하고 다음 세대를 출산, 양육할 예비 인구로서 성교육한다. 하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성적 존재인 우리들은 평생 자신의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과 끊임없이 마주하며 살아간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본래 그러하다'고 승인된 관행과 갈등을 겪는다. 본질적인 어떤 것이 존재한다고 간주되는 한, 그 이외의 것은 쉽게 배척된다. 이성애자인 남학생, 이성애자인 여학생을 전제로 구성된 학교는 그 외부를 수용하기 어려워한다. 외부는 조롱당하고 비정상적으로 호명되며, 더 나아가 비난받고 차별을 받는다. 이분법적인 남성과 여성, 이성애자만이 정상성의 범주로 수용되는 사회 내의, 엄격한 규율이 작동하는 학교라는 공간에서 성소수자 학생들이 무수히 많은 어려움에 처할 것임은 예측하기 어렵지 않다. 차별의 현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성적지향·성별 정체성 법정책연구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은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용역으로만 13~18세 성소수자 청소년 200명과 중고등학교 교사 100명을 대상으로,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학교 내 차별 실태 조사를 시행하였다.



“나는 무서워서 알리지 않고 조용히 숨기고 지내지만 어쩌다가 들려버린 아이들이 학교에서 매장당하고 꿈을 잃고 가족에게 쫓겨나고 하는 사례는 정말 많이 본다. 나에겐 남 일이 아니다. 하나하나 너무 슬프다.” (여성, 레즈비언, 18세)



성소수자 청소년들은 자신의 성적 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좀처럼 드러내지 않는다. 커밍아웃을 하더라도 범위는 좁은 편이다. 성소수자임이 드러날 경우 직면할 수 있는 위험 때문이다. 응답자 중 92.0%는 성소수자임이 드러나면 차별이나 괴롭힘을 당할까봐 자신이 성소수자임을 숨긴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학내에 만연한 성소수자 혐오표현



성소수자를 바라보는 학내의 시선을 보면, 성소수자임을 숨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임을 알 수 있다. 학교 구성원들에게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상당히 만연해 있어서, 성소수자 청소년 응답자의 92.0%는 다른 학생으로부터, 80.0%는 교사로부터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나타내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었다. 교사나 다른 학생에게서 성소수자에 대한 일반적 혐오표현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응답자는 단 4명에 불과했다. "학교에서 다니다 보면 애들끼리 장난으로 하는 말들을 듣게 된다. 레즈 야냐? 더러워. 나한테 하는 게 아닌 걸 아는데도 정말 상처받는다." (여성, 레즈비언, 18세) 하지만 혐오표현을 듣더라도 직접 항의하거나(28.5%) 기분이 나쁘다는 표시를 하기보다는(44.5%) 못들은 척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택하거나(58.0%) 더 나아가서 동의하는 척하기도 한다.(33.0%) 항의하지 않는 것이 굳이 대응할 만한 필요를 느끼지 않아서일 때도 있지만, 항의했다가 자신이 성소수자임이 드러날까봐(77.0%) 참는 경우가 많고, 보복이 두려워서(12.0%) 대응하지 않고 넘어가기도 한다. "스스로 성적 소수자임이 행복하지만 떳떳하지 못해 숨기는 것이 매우 모순입니다만 현재 학생이란 지위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강세인, 아이들의 여론에 휩쓸려 누구보다 포비아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여성, 양성애자, 18세) 성소수자를 지칭하는 말이 그 자체로서 욕설로 사용되고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이 만연한 문화에서는, 성소수자임을 숨기는 것이 생존 전략 중 하나가 된다. 일반적 혐오표현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성소수자인 또는 성소수자처럼 보이는 학생을 직접 겨냥한 차별이나 괴롭힘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모욕을 당하거나 비난을 받는 등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다른 학생으로부터 괴롭힘을 경험한 사례는 54.0%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었다. 교사로부터의 괴롭힘 피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도 20.0%였다.



모욕, 따돌림, 아웃팅... 성소수자 학생의 일상적 경험<표>는 응답자가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성별에 맞지 않는 외모나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또는 동성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괴롭힘 피해를 경험한 비율을 보여준다. 가장 많은 피해 경험은 모욕적인 말이었으며, 다른 학생에 의해 아웃팅당하거나(24.5%) 아웃팅 위협을 받거나(13.0%),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따돌림을 경험하는 사례(각 17.0%, 14.5%)도 나타났다. 더 나아가 다른 학생에게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성희롱, 성폭력을 경험한 경우가 10.0%였고,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경험도 4.5%의 응답자가 보고하였다.

| 괴롭힘 경험 | 교사로부터 | 다른 학생으로부터 |
|--|-------|-----------|
| 놀리거나 모욕적인 말 | 15.0 | 47.5 |
| 다른 사람에게 나를 모욕한 것을 내가 알게 됨 | 8.5 | 28.0 |
|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성소수자임을 공개함 | 3.5 | 24.5 |
| 내가 성소수자임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줬다고 협박함 | 1.5 | 13.0 |
| 내가 성소수자임을 아는 교사가/다른 학생이 내게 개인적으로 성소수자를 무시하거나 비난하는 말을 함 | 3.5 | 21.0 |
| 내가 성소수자임을 알고 나서 교사가 일상적으로 불이익을 줌 | 3.5 | - |
| 내가 성소수자임을 알고 나서 다른 학생이 일상적으로 시비를 걸 | - | 16.0 |
| 카카오톡,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따돌리거나 헐뜯을 함 | - | 17.0 |
| 따돌림 | - | 14.5 |
| 성희롱 또는 성폭력 | 0.5 | 10.0 |
| 나의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빼앗거나 훔쳐감 | 2.5 | 8.0 |
| 신체적 체벌/ 신체적 폭력 | 2.5 | 4.5 |
| 기타 다른 괴롭힘 | 2.0 | 6.0 |

<표> 성소수자 학생의 괴롭힘 피해 경험 괴롭힘 경험은 등록된 성별과 외관상 성별이 일치하지 않거나 트랜스젠더인 경우 더 많이 발생하였다. 성소수자 학생이 '여자 같은 남자', '남자 같은 여자'로 평가될 경우, 63.9%가 놀리거나 모욕적인 말을 들은 경험이 있고, 36.1%가 아웃팅을 당하였으며, 27.8%가 아웃팅의 위협을 받았다. 트랜스젠더는 더 열악하다.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경험은 비트랜스젠더인 성소수자의 경우 3.6%인데, 트랜스젠더는 20.0%로 약 5.6배에 달한다. 따돌림 경험도 트랜스젠더가 비트랜스젠더 성소수자에 비하여 약 3배 정도 더 높았다. 차별, 괴롭힘 경험자 중 19.4%가 자살 시도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나 괴롭힘은 스트레스(80.6%), 우울증(58.1%), 친구와 사이가 멀어짐(52.7%), 학습 의욕 저하(46.2%) 등으로 이어진다. 차별이나 괴롭힘으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하거나(19.4%) 자해를 하는(16.1%) 사례도 무시할 만한 수치가 아니다. 또한 결석(11.8%), 진학 포기(6.5%), 자퇴(4.3%), 전학(3.2%)으로 이어지기도 해서, 차별과 괴롭힘이 성소수자를 학교에서 배제하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자해나 자살 시도 경험자들은 특히 일반적 혐오표현이나 괴롭힘 경험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학교 내에서 학생이 다른 학생이나 교사로부터 괴롭힘을 경험할 경우, 교사는 당연히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교사들은 성소수자 학생들이 경험하는 문제를 잘 알지 못하는 것 같다. 설문에 응답한 교사 중 58.0%는 재직 중인 학교에 성소수자로 생각되는 학생이 없었다고 답하였고, 성소수자여서 혹은 성소수자처럼 보여서 차별이나 괴롭힘을 당한 학생이 없었다는 응답은 66.0%였다.교사가

성소수자 학생의 존재 또는 성소수자에 대한 괴롭힘을 알지 못하는 것은 학생이 상담이나 커밍아웃을 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다. 하지만 학생이 문제를 교사에게 보고하고 상담할 것을 기대할 수 있으려면, 학교와 교사가 학생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학교와 교사는 적절한 보호망이 되어 주지 않는다. 보호망이 될 수 없는 학교와 교사

상담에 대한 교사들의 태도를 보면, 학생이 성적체성과 관련하여 상담해올 경우, 학생의 성적체성을 존중하고 지지하겠다는 응답을 한 교사는 51.0%로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에 불과하였던 데 비하여, 아직 어려서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라는 취지로 설득하겠다는 응답이 29.0%로 적지 않았고, 다른 학생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주의를 시키겠다는 응답도 9.0%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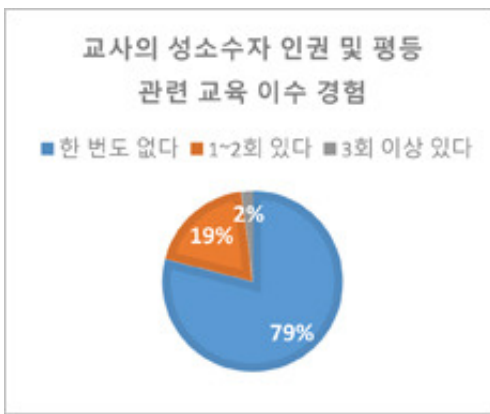
또한, 교사 응답자의 7.0%는 상담을 한 후 학생의 의사와 무관하게 보호자에게 알릴 것이라고 답하여, '상담했다가 아웃팅 당할지도 모른다'는 학생들의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마저 엿보였다. 성적체성 관련 상담 태도는 응답자의 성역할 고정관념과도 관련이 있었는데, '여자는 여자다워야 하고, 남자는 남자다워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더 많이 동조하는 교사일수록, 학생의 성적체성을 존중하고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더 적었다. '이반검열', 징계, 성별정체성 무시.... 차별적인 정책과 관행들

심지어는 학교가 성소수자를 적극적으로 차별하고 배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청소년 응답자 중 5.1%는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교사로부터 학교 내의 활동들을 포기하라는 강요를 당한 경험이 있었다. 4.5%가 동성애자의 이름을 적어 내도록 하는 소위 '이반검열'의 경험을 한 적이 있었고, 전체 청소년 응답자 중 4명은 동성 간 교제를 이유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었다. '남자답지 못하다' 또는 '여자답지 못하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도 7명 있었다.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은 매사에 이분법적 성별에 따라 학생을 구분하는 학교에서 원하는 성별로 대우받지 못하다가 결국 학교를 그만두기도 했다. 일례로 트랜스젠더 중 53.3%는 원하는 성별에 맞지 않는 교복을 입고 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적어도 이번 설문에 응답한 100명의 교사 중에는, 현재 재직 중인 학교에 성소수자 학생의 차별을 금지하거나 인권을 보호하는 명시적인 정책을 두고 있는 사례가 전혀 없었다.



청소년 및 교사 조사 결과를 보면, 학교 내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차별은 무엇보다도 무관심과 무정책으로부터 오는 것 같다. 적극적으로 차별적인 정책을 두고 있는 몇몇 학교도 있지만, 더 많은 차별과 괴롭힘은 오히려 관행과 무관심에서 비롯된다. 교사들은 학교에 성소수자 학생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더라도 특수하거나 비정상적인 집단으로 간주하며, 성소수자가 겪는 차별에 관해 관심을 두지 않는다.



교사들의 인식 제고 기회도 잘 마련되지 않는데, 교사가 된 후 성소수자 인권이나 평등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21.0%로 매우 적다. 상담교사나 보건교사 집단도 크게 다르지 않아서, 응답자 중 상담교사 및 보건교사의 66.7%가 관련 교육 경험이 한 번도 없었다. 물론 교육 경험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인식의 변화가 뒤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학교는 훨씬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하지만 학교 내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이나 성소수자를 배제하는 관행은 너무 자연스러워서 차별이라는 인식조차 없고,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나 괴롭힘을 예방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자각도 부재하다. 그래서 성소수자에 대한 일반적인 혐오는 성소수자인 혹은 성소수자처럼 보이는 학생에게로 쉽게 전환되고, 피해는 피해자의 개인적 책임으로 돌아가며, 성소수자 학생은 차별이나 괴롭힘의 위험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지 못한다. 그러므로 성소수자는 다시 학교 내에 '존재하지 않는' 집단이 된다. 2004년 제정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행, 협박, 모욕, 강요,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등등의 행위들을 학교폭력으로 정의하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였다. 성소수자 학생 또한 인권을 보호받아야 할 학생이라면, 학교는 성소수자에 대한 학교폭력의 중단을 위한 노력을,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한다. 글_김정혜 (성신여자대학교 강사, 전 공감 객원연구원)

-

[웹진 특별판] 4.16 인권선언 운동 활동일지 (11~12월)

by 인권선언416 posted Dec 16, 2015

2015.10.30.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하나반 과운영위원들과 함께 하는 풀뿌리토론



2015.11.13. 4.16인권선언 초안 마련을 위한 성안팀 워크숍

2015.11.18. 4.16인권선언 추진단 2차 전체회의 준비를 위한 워크숍



2015.11.24. 4.16인권선언 제정 특별위원회 점검회의

2015.11.28. 4.16인권선언 추진단 2차 전체회의



2015.12.03. <청소년과 세월호> 토론회



2015.12.09. 4.16인권선언 제정 특별위원회 합동회의 & 점검회의

2015.12.10.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 기자회견 "선언에서 행동으로"

